

# 더 큰 날개, 힘찬 도약, 제2의 중흥기를 맞은 국립 강원대학교

국립 종합대학인 강원대학교와 국립 산업대학인 삼척대학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강원대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강원대학교의 통합은 이미 통합 거론 초기부터 강원도 영동과 영서 지역의 교육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마침내 200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는 '더 큰 날개'를 달고 '힘찬 도약'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는 강원대학교는 춘천캠퍼스에서 IT, BT, 기초학문, 문화예술, 의생명 등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삼척캠퍼스에서는 방재와 한방보건학을 특성화 분야로 적극 육성하여 강원도 전역과 수도권 동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대학으로 뻗어나갈 힘찬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통합 대학의 출범에 맞춰 과감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별 비교우위에 따라 차별화·특성화를 추진하고, NURI 사업과 2단계 BK21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인 'KNU 222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부단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KNU 222 프로젝트**

- 2006년 ⇒ 강원도 거점대학
  - 통합 기반 구축과 질 높은 교육체제 확립
  - 연구경쟁력 제고 및 지역혁신, 산학협력 강화
- 2010년 ⇒ 중동부권 핵심대학
  - 특성화 분야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및 대학원 활성화
  - 국내 20위권 대학 진입(현재 종합 32위, 연구 38위)
- 2020년 ⇒ 세계 200위권 명문대학
  - 연 SCI 1인당 1.5편 수준
  - 세계 200위권 진입

⇒ **입시부터 다양한 선택이 있는 개성 있는 대학**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강원대학교의 전략적 모집관리 및 분석은 매년 국립대학교 중 가장 높은 경쟁률과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2007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입학에서부터 열려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신성적 우수자 선발과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지역할당제, 학생임원 활동 역임자와 수능등급 우수자 모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림·축산 전업 후계자 모집 등은 강원대학교만의 개성 있는 전형방법이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부족할 수 있는 체육특기생을 위한 체육특기자 전형과 수능점수 최고지상주의에서 벗어난 유수 대회 수상자 모집과 특정과목 성적우수자 모집은 그야말로 강원대학교가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 '1고교 1교수' 전담제를 통한 예비 수험생 예약

대학시장 경쟁력 과열의 원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험생의 수 때문이라면 강원대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처방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역적인 범위에서 강원대학교의 통학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최근 10년간의 진학률 분석을 통해 정해진 집중 관리 고교에 1명의 전담 교수를 배치한 '1고교 1교수 전담제'와 'Fellow 교사제'이다. 전담 교수는 수시로 해당 관리고교를 방문, 특강을 비롯한 입시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학교 소식을 전달하고 우수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입시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내부의 동지를 만들어 놓는 'Fellow 교사제'이다. 이는 해당 고교에 강원대학교 전담 교사를 지정하여 대학과 고교 간의 정보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쌍방향 입시홍보 프로그램을 말한다.

강원대학교의 이러한 노력이 매년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최상위의 등록률을 유지하는 비결인 동시에 예비 강원대생을 예약한다는 의미에서 앞선 입시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 1년 365일 열린 대학



강원대학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먼저 30만 평의 캠퍼스와 100만 평의 학술림의 규모에 놀란다. 이미 강원대학교는 『한국대학신문』이 선정한 '아름다운 캠퍼스 10'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국내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사계절은 이미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았다. 특히 견학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를 실현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시설규모 위주의 견학이 아닌 수험생이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을 직접 연결하는 '학과중심 견학 프로그램'이다. 또한 캠퍼스는 1년 365일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 ⇒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기 좋은 대학

최현섭 총장이 취임하면서 대학 내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학교의 정책적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기 좋은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백령종합지원센터'를 개설, 1회 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i-campus 사업(강의별 교수와 학생을 위한 포털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공부하기 좋은 대학'으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 ‘고객감동, 대학경영’을 목표로



강원대학교 총장 최현섭

### ■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후 지난 2년에 대해 회고해 주십시오.

총장직에 취임하면서 처음 다짐했던 나와 구성원의 약속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늘 고민하며 지나다 보니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위치를 분석해 보고 국내적·국제적으로 좀 더 향상된 강원대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총장임기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문도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대학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 ■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이신지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수 연구경쟁력의 제고입니다.

교수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환경 개선 등 기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 초빙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연구의욕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 종합 업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연구 지원사업, 교수 책임시수 경감,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연구 스터디그룹 지원, 국책사업 참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구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연구의욕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 승진심사 중 연구 분야 기준 강화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의 확보와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수업 방법의 개선, 교수학습법 개발, 교육모니터제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생활관 운영,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어학연수 학점인정제, 해외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화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제고를 위한 무한능력개발원을 설치하여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인력개발원을 설치하였고,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개최, 여학생 리더십 캠프 운영, 학생 개인별 경력관리제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 과제는 외부 재정유치와 산학협력의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책충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는 지역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기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하기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책충을 위한 국책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중요 사명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인데, 강원대학교는 강원도의 거점 대학으로서, 또 수도권의 국립 종합대학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CEO포럼 창설, 중부권 기술이전사업단(TLO) 유치, 생명건강 특성화 지역 혁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학협력센터를 확충하고 해외센터 설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넷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고객은 학생, 교수, 학부모, 지역사회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는 특히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는 뉴패러다임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차원에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고 마인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학교의 위상 제고와 홍보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는 2020년까지 국내 20위권, 세계 200위권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KNU 222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상은 앞에서 제시한 교수 연구경쟁력, 학생의 능력, 재정의 확충과 산학협력, 고객감동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 내년이면 우리대학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며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증대, 대학의 위상제고, 대학구성원의 자긍심과 참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강원대학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 양성, 세계 환경보전전문가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원대학교에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센터와 UNEF 에코피스 리더십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국립대학교 교수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지난 60년의 터전 위에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④ 배낭여행도 학점으로 인정

#### - 학생 스스로 국제화 능력을 키워

정형화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그만! 강원대학교의 국제화 교육은 그야말로 학생 스스로가 잠재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 정규프로그램을 통해 다녀오지 않은 자비 유학이나 해외 어학연수도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만 외치는 국제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한 국제화 활동 및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국문화와 어학의 접촉을 통한 살아있는 국제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강원대학교의 포부이다.

### ④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생활관

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원어민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개관한 국제생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0억 원의 지원금과 강원대학교(32억 6천만 원) 및 고성군을 비롯한 9개 자치단체(16억 5천만 원)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

국제생활관은 지하 1층/지상 8층에 2인실(60실), 4인실(12실), 가족실(6실) 등 총 78실의 주거공간에 192명을 수용하며, 각종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외국인 학생생활관이다.

국제생활관은 외국 유학생과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어학교육을 유도하고,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는 메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국제생활관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제도

### ■ BEST-KNU(Bring Excellent Student T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선발 목적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통한 교수 연구의 효율성 증진 및 대학원의 위상 제고
2. 선정 예정 인원 : 매년 15명
3. 지원 마감 : 매년 4월 말(2학기)과 10월 말(1학기)
4. 유치 대학원생의 지원 내용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단,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5학기, 통합 과정은 8학기까지 지급
  - 외국인 학생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 2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5. 대학원생 유치 교수
  - 숙식비(기숙사비) 지급 : 월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36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부담하여 지급
  - 기타 수학경비(교재비 등) 지급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연수에 따른 교육비 지급
6. 유치대상 학생 선발기준
  - 기준 자격 : 토플 500점(CBT 173)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GRE 1,3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영어권이나 비영어권의 구분 없음)
  - 수학계획과 전공연구의 연계성 고려(수학계획서 요구)

### ■ ACES-KNU 프로그램(Academic Counterparts Elites Scholarship)

1. 선발 목적 : 자매대학의 우수학생에게 부여하는 장학제도
2. 지원 마감 : 매년 4월 말(2학기)과 10월 말(1학기)
3. 유치 대학원생의 지원 내용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단,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5학기, 통합 과정은 8학기까지 지급
  - 외국인 학생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 기숙사비 지원



## ④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취업은 이미 대학의 존재가치가 될 정도로 대학이 가지는 교육적 의무를 넘어 운명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강원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학생 한명 한명의 능력을 개발하고 졸업 후 취업기회를 배가시키기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동문이 후원자가 되어 실질적인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제도와 채용정보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학생 간의 1대 1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취업 특강과 모의면접고사가 실시되고 있는 '무한능력개발원'에서는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학생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취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한 2007년 개설 준비 중인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미래 여성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다.

강원대학교의 2006년 현재 순수 취업률 70%라는 수치는 단순한 공간배정과 프로그램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높은 취업률이다. 기업이 원하고 미래가 원하는 인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강원대학교의 제도적 뒷받침은 바로 졸업자격인증제로서 어학, 컴퓨터, 독서 분야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한 것이다. '자격 있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준비를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입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의 발굴

춘천과 삼척 양 캠퍼스의 강점을 살린 학문 분야별 중점 특성화 전략은 강원대학교만의 개성 있고 차별화된 인재 육성의 비결이다

춘천캠퍼스는 인류 미래의 건강, 식량,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강원 지역 특화사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될 BT 분야,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글로벌 엔지니어를 키워내는 IT 분야, 문화예술도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CT 분야를 전략적으로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삼척캠퍼스는 지역 의료 및 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한방 산업 중심지로서 강원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줄 한방 분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화·전문화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재 분야를 집중 특성화시키는 등 각 분야별 특성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④ 최근 2년간 국책사업 선정 1,170억 원의 예산 지원 받아

대학경쟁력의 하나는 바로 연구경쟁력이며, 재정지원 유치이다.

최근 2년간 강원대학교의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액은 1,170억 원이 되었다. 이는 강원대학교의 높아진 대외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 강원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

2단계 BK21 사업에 10개 과제가 선정되면서 20억 7천만 원, 민자 기숙사(BTL)사업에 35억 원, 강원대학교 병원 지역암센터 선정에 20억 원 등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에 지정되면서 미래 대학교육의 재정책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대학교는 효율적인 국가정책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학협력과를 신설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④ 학생생활원은 또 하나의 펜션

캠퍼스의 녹지공간에 세워진 학생생활원은 그야말로 그린캠퍼스 속의 펜션이다.

2,200명이 생활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은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민자유치 기숙사 신축(BTL)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1,892명이 늘어난 4,000여 명의 학생이 학생생활원을 이용하게 되며, 이는 재학생 중 3분의1의 학생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로서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학생생활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은 단순한 숙식공간이 아닌 미래 사회인으로 갖추어야 할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이다.

## ④ 2005 대교협 학문 분야 대학평가 우수대학 선정

- 농학(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원예학과, 동물생명과학전공), 체육학, 무용학 분야

'2005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 분야 평가' 결과 세 개 분야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강원대학교는 농학 분야에서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원예학과, 동물생명과학전공 등이 평가 대상학과였는데, 교육목표·교육과정 및 수업 등의 분야와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체육학과 무용학 분야에서도 분야별 높은 점수를 얻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강원대학교가 위치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문 분야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이며, 특히 열악한 강원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강원대학교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 쾌거이다.

## 생명·건강(H&H) 지역혁신 센터 유치

###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90억 원 지원

강원대학교가 생명·건강(H&H)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유치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19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강원대학교는 강원도의 '생명·건강산업' 5개년 계획과 춘천시의 특화산업인 BT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생명·건강 분야의 BT특성화 학부(대학)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H&H 지역 혁신센터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설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센터는 총 13,000m<sup>2</sup> 규모에 총 사업비 194억 7천 5백만 원이 투자되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축 위치 확정 및 설계를 한 후,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 강원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센터, 외교통상부 지원 빈곤국가 경제 연수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강원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센터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빈곤 국가들의 차세대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는 연수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4월 설립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 초청, 봉사 프로젝트, 개발 조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는 전액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받게 되며 15일간의 연수기간 동안 경제이론 교육과 산업시찰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강원대학교와 나아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센터는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2주간 UN기구의 하나인 UN ESCAP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나라의 중견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UN기구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이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에 대한 해답을 얻은 소중한 시간 2006년 하계 ‘중국 단기 어학연수’

허숙영(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02학번)

중문학과 출신으로 부끄럽기는 하지만 중국어에 대한 열정이 그리 크지 않았던 탓일까? 4학년의 막바지에 도달할 때까지도 중국 어학연수는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진로선택까지 마무리해 놓았던 탓에 연수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하지만 배움에 있어 빠르고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있어 이번 연수는 큰 자극제가 되었다.

몇 년 전 중국으로의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어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어학을 위한 방문이었기에 그 느낌이 남달랐다.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행동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나조차도 신기할 따름이다. 이제까지 내 안에 그러한 열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이번 연수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내 열정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는 행운을 얻었고, 게다가 그것은 나를 자극시켰다. 짧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잊은 채로 지냈다. 집도, 가족도, 스트레스도... 나에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배우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쉬운 과제였으나 처음에는 머리와 입이 그들 앞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더해갔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수업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궁지에 몰리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나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궁지에서 몸부림을 쳐댔다. 중국인 친구를 구하고, 과외도 받으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졌다.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면서 2인 1조 여행도 감행했다. 교실에서 받는 수업도 유익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대륙을 종·횡단하는 여행을 하는 것도 중국을 배우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편도 8시간의 백두산 여행과 편도 3시간의 하얼빈 여행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국인의 습성 덕분에 한국인인 나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고, 가는 내내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인이 한 마디씩 던지는 단어야말로 바로 생활 언어이기에 교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보물을 획득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서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